

#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학교텃밭 프로그램의 적용에 따른 효과 연구

이승은\* · 오충현\*\* · 이승훈\*\*\*

\*동국대학교 대학원 바이오환경과학과 ·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I. 서론

2016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이 지난해 동차 대비 0.1%(5천명) 감소한 0.9%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이후 5년 연속 감소 추세로, 학급 별로는 중학교의 감소폭(0.2%)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1%, 중학교 0.5%, 고등학교 0.3%로 나타나, 초등학교에서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다(교육부, 2016). 이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농업이 가지는 치유효과를 향상시키고, 학교·가정·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관계형성과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초등학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진학하고 난 이후 이를 위한 대처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적용 대상은 중학생이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내 중학교 두 곳(SN중학교, SM중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SN중학교 대상은 3학년 학생 17명이며, 텃밭 유형은 학교 뒤뜰 공터를 이용한 인공지반 상자텃밭과 주머니 텃밭이다. 일주일에 1회씩 총 6회가 진행되었으며, 한 회는 60분으로 구성되었다. SM중학교 대상은 1~2학년 학생 23명이며, 텃밭 유형은 학교 앞마당을 활용한 인공지반 상자텃밭과 주머니 텃밭이다. 동아리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총 4회(프로그램은 6회차)로 한 회는 150분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방법은 학교텃밭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정서, 주관적 안녕감, 심리척도 - 자아존중감, 우울, 사

회불안, 회복탄력성 -, 학교폭력 척도 등을 설문조사하여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측정 결과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학교텃밭 프로그램 효과 분석

#### 1) 학교폭력 점수

SN중학교와 SM중학교의 학교폭력 가해 점수를 학교텃밭 프로그램 실시 전후로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는 학교텃밭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해 실시 후 가해행동을 더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시 전 평균=7.8; 실시 후 평균=7.3). 그러나, SN중학교는 가해행동이 줄어든 반면(실시 전 평균=8.6; 실시 후 평균=7.1), SM중학교는 가해행동이 오히려 늘어났다(실시 전 평균=7.2; 실시 후 평균=7.4).

학교폭력 피해 점수를 학교텃밭 프로그램 실시 전후로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는 학교텃밭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해 실시 후 학교폭력을 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시 전 평균=7.5; 실시 후 평균=7.2). 그러나 SN중학교는 학교폭력 피해가 줄어든 반면(실시 전 평균=7.9; 실시 후 평균=7.0), SM중학교는 학교폭력 피해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2) 심리 척도 분석

SN중학교는 자존감이 높아진 반면(실시 전 평균=38.1; 실시 후 평균=41.4), SM중학교는 자존감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실시 전 평균=39.8; 실시 후 평균=38.3). SN중학교는 우울이 더 낮아진 반면(실시 전 평균=27.4; 실시 후 평균=24.1), SM중학교는 우울이 더 높아졌다(실시 전 평균=28.8; 실시 후 평균=31.5). SN중학교는 탄력성이 더 높아진 반면(실시 전 평균=100.4; 실시 후 평균=103.4), SM중학교는 탄력성이 더 낮아졌다(실시 전 평균=105.6; 실시 후 평균=102.8). SN중학교는 사회불안이 더 낮아진 반면(실시 전 평균=54.6; 실시 후 평균=

이 연구는 2016년도 농촌진흥청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 S-2016-A0353-00002

48.1), SM중학교는 사회불안이 더 높아졌다(실시 전 평균=56.0: 실시 후 평균=68.0).

### 3) 감정척도와 자존감척도의 위계적 회귀분석

학교텃밭 프로그램 실시 후의 자존감 점수를 기준변인으로 하는 일련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1단계에는 학교텃밭 프로그램 실시 전의 자존감 점수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는 프로그램 6회차 동안 실시한 9가지 감정척도의 평균들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놀람’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 감정척도들(감정표정, 슬픔, 화, 행복, 무서움, 유쾌, 흥미, 혐오)이 학교텃밭 프로그램 실시 후의 자존감 점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 6회차 동안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할수록 프로그램 실시 후의 자존감 점수가 높았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할수록 프로그램 실시 후의 자존감 점수가 낮았다.

이는 학교텃밭 프로그램 실시 전의 자존감 수준의 영향과는 별도로 감정 변인들이 프로그램 실시 후의 자존감에 고유한 영

표 1. 학교텃밭 프로그램에서의 정서 경험이 자존감(프로그램 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예측변인	Total R <sup>2</sup>	ΔR <sup>2</sup>	F (ΔR <sup>2</sup> )	df	β
1	단계 1: 자존감(프로그램 전)	.506	.506	38.961**	1, 38	.712
	단계 2: 감정표정(6회 평균)	.622	.116	11.358**	1, 37	.347
2	단계 1: 자존감(프로그램 전)	.515	.009	.676	1, 37	.700
	단계 2: 놀람(6회 평균)	.649 <sup>a</sup>	.142	14.997**	1, 37	-.379
	단계 1: 자존감(프로그램 전)	.619 <sup>a</sup>	.112	10.899**	1, 37	.695
	단계 2: 화(6회 평균)	.617	.111	10.705**	1, 37	-.336
	단계 1: 자존감(프로그램 전)	.592	.086	7.799**	1, 37	.602
	단계 2: 행복(6회 평균)	.709	.117	10.705**	1, 37	.350
	단계 1: 자존감(프로그램 전)	.605	.099	9.299**	1, 37	.709
	단계 2: 무서움(6회 평균)	.605	.099	9.299**	1, 37	-.293
	단계 1: 자존감(프로그램 전)	.613	.107	10.186**	1, 37	.605
	단계 2: 유쾌(6회 평균)	.609	.107	10.186**	1, 37	.333
	단계 1: 자존감(프로그램 전)	.613	.107	10.186**	1, 37	.609
	단계 2: 흥미(6회 평균)	.713	.100	7.679*	1, 37	.342
	단계 1: 자존감(프로그램 전)	.584 <sup>a</sup>	.077	6.879*	1, 37	.713
	단계 2: 혐오(6회 평균)					-.278

<sup>a</sup>. R<sup>2</sup>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반올림 때문.

\* p<.05, \*\* p<.01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회귀분석 결과는 학교텃밭 프로그램 자체의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학생들이 학교텃밭 프로그램에 6회차에 걸쳐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수록 프로그램 실시 후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 I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대처를 위해 개발된 학교텃밭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측정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해학생용 프로그램이 진행된 SN중학교 대부분에 긍정적 효과가 검증된 반면, 피해학생용 프로그램이 진행된 SM중학교에서는 효과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은 프로그램 활용 및 진행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첫째, SN중학교는 일주일에 1회 60분씩 총 6회를 진행했고, SM중학교에서는 한 달에 1회 150분씩 총 4회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도시농업 프로그램은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더 높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된다. 둘째, 수업진행 학생수가 SN중학교는 17명이고, SM중학교는 23명이었기 때문에, 또래친구들과 텃밭활동 강사와의 친밀성을 높일 수 있는 인원수가 프로그램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예측할 수 있다. 셋째, 학교 교사의 역할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SN중학교에서는 학교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교텃밭을 관리 및 운영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내의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한 반면, SM중학교에서는 학교 교사가 한 달에 한 번 프로그램 진행 시에 참여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학생 및 학교텃밭에 대한 후속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문제행동 청소년이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아존중감, 사회성, 우울감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정남식 외(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학교텃밭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농업이 가지는 치유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해리, 조한익(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제42호, pp. 161-206.
- 교육부(2016) “학교폭력 감소 추세 지속”, 보도자료, 2016. 7. 18.
- 정남식, 이용학, 강은지, 김용근(2016) 청소년 문제행동 완화를 위한 도시농업 체험활동의 효과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3(3): 271-283.